

# 남은 16경기 막판 스퍼트 KIA, 2위는 꼭 지킨다

넥센·롯데와 잔여경기… 김선빈·안치홍 활약 기대

2위 수성을 위한 KIA 타이거즈의 막판 스퍼트가 시작됐다.

KIA는 지난주 롯데와의 원정 3연패 뒤 안방에서 SK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며 지속과 천장을 오갔다. 4위까지 추락했던 순위는 28일 안치홍의 끝내기 안타와 함께 2위 자리로 복귀했다.

30일부터는 잔여경기 일정이 시작된다. 2011시즌 16경기만을 남겨 놓고 있는 KIA는 이번주 넥센, 롯데와의 두 경기만 소화하면 된다.

30일 홈에서 넥센과의 최종전을 치른 KIA는 내달 1일에는 사직으로 견녀가 롯데와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롯데와의 경기 이후에는 삼성과의 홈경기가 열리는 다음달 8일까지 일정이 없는 만큼 KIA는 두 경기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KIA의 막판 스퍼트는 28일 이미 시작됐다.

SK와의 홈 경기가 열린 이날, KIA

는 앞선 등판에서 무릎에 공을 맞았던 선발 트레이비스의 구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일찌감치 투수를 교체하며 점수 지기기에 나섰다. 6회에는 선발 요원인 로페즈를 투입하며 대역전극을 예고했다.

화요일 선발로 예정된 서재응을 제외한 마운드 전원 대기령을 내리며 총력전을 벌인 KIA의 작전은 안치홍의 끝내기 안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넥센과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마운드 전원 대기령은 계속된다.

30일 넥센과의 대결에서는 후반기 특급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서재응이 선발의 임무를 맡았다. 안치홍도 생애 첫 끝내기 안타로 짐작이 3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재응은 지난 26일 SK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시즌 7승을 챙겼다.

서재응은 시즌 넥센과의 경기에서 2.92의 방어율로 2승1패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2위 탈환에 앞장섰던 서재응은 넥센을 상대로 2위

##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29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개입차	연속
1 삼성	107	63	42	2	0.600	-	1패
2 KIA	117	64	53	0	0.547	5.0	3승
3 롯데	108	57	48	3	0.543	6.0	1승
4 SK	102	55	47	0	0.539	6.5	3패
5 LG	104	50	53	1	0.485	12.0	2승
6 두산	101	43	56	2	0.434	17.0	1승
7 한화	106	45	59	2	0.433	17.5	3패
8 넥센	101	41	60	0	0.406	20.0	1패

지기기에 나선다.

김선빈·안치홍 '꼬꼬마 키스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SK전 3연승의 주인공은 김선빈과 안치홍이었다. 3번 타자라는 중임을 맡은 김선빈은 이영욱을 상대로 시즌 4호포를 쏘아올리는 등 두 경기 연속 결승타를 만들어냈다. 안치홍도 생애 첫 끝내기 안타로 짐작이 3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꼬꼬마 키스톤'의 수비도 활상적이다. 집중력 있는 수비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등 두 선수는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잔여경기 승률을 쌓았던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서재응은 지난 26일 SK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시즌 7승을 챙겼다.

서재응은 시즌 넥센과의 경기에서 2.92의 방어율로 2승1패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2위 탈환에 앞장섰던 서재응은 넥센을 상대로 2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의향서 제출

전라북도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완주군과 함께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의향서를 내고 본격적인 프로야구 단유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KBO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의향서를 낸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의 유치의향서에는 최첨단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갖춘 2만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2015년까지 전주에 새로 짓는 등 프로야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전북도는 신설 야구장을 25년간 장기 임대하고 사용료도 저렴하게 해 구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야구장 내 부대수의 사업권을 구단에 주는 등 구장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한 군산 월명야구장 관람석을 1만 310석에서 1만 5000석으로 확장하고, 익산야구장을 구단 연습장 및 2군 리그 구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신설 야구장을 25년간 장기 임대하고 사용료도 저렴하게 해 구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야구장 내 부대수의 사업권을 구단에 주는 등 구장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봐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3리운드 홈경기에서